

## 祝 辭

尊敬하는 서울大學校 李賢宰 副總長님, 名聲높으신 黃山德 前 法務部長官님, 우리나라 法學界를 象徵하시는 高邁한 元老 法學者와 全國의 法科大學 教授님 여러분, 特히 이자리를 빛내주시기 爲하여 來韓하신 버클리大學의 필립 존슨(Phillip E. Johnson) 教授와 上智大學의 호세 옴파르트(José Llompарт) 教授님, 그리고 우리나라 法曹界를 代表하시는 在朝在野의 高名하신 法曹人 여러분과 內外 貴賓 여러분!

보람과 어려움으로 交叉된 1981년도 짜늘한 날씨 속에 저물어 갑니다. 送舊迎新의 마무리와 準備로 公私多忙하신 中에도, 오늘 이자리에 會同하시어 「韓國의 法學과 法律實務」라는 題目下에 우리나라 法學과 法律實務의 現住所를 診斷하고 빛나는 來日의 座標를 가늠하기 爲하여 本 學術會議를 開催하게 된데 對하여 無限한 祝賀와 敬意를 表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뜻깊은 자리에서 本人으로 하여금 所懷의 一端을 披瀝할 수 있도록 榮光스러운 機會를 許諾하여 주신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金致善 學長님과 法學研究所 襄載湜 所長님을 비롯한 當局者 여러분께 深甚한 謝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法學이나 法律實務는 民族史의 運命과 함께 日帝에 依하여 지나간 沈默과 斷切을 強要당하였으며, 再次 同族相殘의 苛酷한 戰亂이 스쳐간 것더미 위에서 赤手空拳으로 出發하였습니다.

祖國의 光復이 있는 지도 어딘 30餘年, 民衆과 權力, 自由와 安保, 安定과 成長이라는 歷史의 試行錯誤와 政治의 渦中에서 네개의 共和國이 차례로 왔다가는 갔습니다.

이러한 社會의 變動과 波瀾은 特히 實踐科學으로서 政治나 道德과 이웃하면서 獨自의인 世界觀과 方法論으로 社會를 照明하고자 하는 法學의 內面에 많은 葛藤과 試鍊을 強要했던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惡條件과 試鍊 속에서도 오늘날과 같은 韓國의 法學과 法學教育을 이루어 놓은 原動力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高邁한 學究的 情熱, 國家社會의 現實을 洞察하는 透徹한 召命意識과 獻身의 努力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무도 否認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온누리는 舊時代의 非理와 矛盾을 斷乎히 清算하고, 富強한 自主民族國家, 偉大한 韓國을 指向하는 建設의 망치소리로 가득차 있습니다.

第2의 跳躍을 이루어 正義로운 民主福祉國家를 具現함으로써 民族史의 새 章을 여는 創造와 革新의 大役事는, 不條理와 葛藤으로 點綴된 過去를 徹底히 反省하고, 未來의 座標를 構想하는 偉大한 靑寫眞의 提示와 그에 따른 實踐意志에 依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

각됩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꿈을 實現하기 위한 第5共和國 建設의 첫해를 보내면서, 우리나라 法學과 法律實務의 過去를 回顧하고, 오늘에 對한 反省을 土臺로 새로운 韓國의 法을 定立코자 하는 이자리의 學術會議는 그 意義가 實로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의 이 會議에는 學界를 代表하시는 國內外的 著名한 教授님들과 經綸을 갖추신 在朝在野의 中堅法曹인들이 자리를 함께 하심으로써 學界와 實務界 相互間에 眞摯한 만남의 場所가 되었다는 點에서 더욱 그 뜻이 깊다고 하겠습니다. 事實, 이제까지의 法學界와 實務界間의 交渉과 接觸이 疏遠했던 點에 關하여는 우리 모두가 率直坦白한 마음으로 反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國際的으로나 國內的으로나 垂直的인 激變의 時代에 살고 있으며, 時代가 法律家에게 賦與하고 있는 課題는 廣範하고도 深刻합니다.

오늘날의 公法은 國家의 權力的 作用을 다루는 面에 있어서 韓國의 政治的, 社會的 價値에 對하여 더욱 深奧한 洞察力을 要求하고 있으며, 物質的 精神的 生活樣相의 變轉에 따른 私權理論의 再檢討, 犯罪現象의 組織化, 凶暴化에 따른 法的 制禦技術의 高度化에 對한 要請이 날로 커가고 있는 한편, 經濟社會의 秩序를 確立하고자 하는 經濟法의 問題는 國家經濟政策의 成敗를 左右하는 重大한 局面에 이르러 있습니다.

한 時代의 社會規範으로서 機能하는 法的 創造과 運營을 擔當하는 法律家가 그 社會의 異端者가 될 수 없음을 너무나 當然합니다. 이상과 같은 複雜多岐한 諸問題를 直接 擔當하는 在朝在野의 法曹人과 이에 理論的 支援을 提供하는 法學界가 透徹한 連帶感으로 協力하지 않는 限, 法學과 法律實務의 進歩는 勿論 國家發展 亦是 期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會議를 契機로, 法學界와 法曹界가 法學教育이나 法曹養成에 關하여 機能的인 交渉을 더욱 強化하고, 制度的인 紐帶를 한층 鞏固히 하시기를 懇切히 所望하는 바입니다.

從來에 있어서 學界와 實務界間의 連繫가 滿足스럽지 못했던 事實은, 法解釋이라는 規範分析에 偏重되어 實踐에 無關心한 法學과 理論과는 乖離된 채, 姑息的 因習과 權威에만 依存하는 官僚主義的 法律實務 두가지 모두가 原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두 現象은 法社會學, 法史學, 立法政策學과 같은 經驗科學的인 法學方法論과 그 研究의 成果에 對한 輕視라는 斷面 속에 端的으로 들어난다고 생각됩니다.

今世紀에 들어 經驗科學의 急激한 發展은 바야흐로 「科學의 世紀」를 가져왔으며 科學에 對한 依存度를 날로 深化시켜 가고 있습니다.

本人은 經驗科學的 方法論의 價値를 強調함으로써, 理性主義的 認識方法을 비롯하여 學問研究에 關한 多樣한 接近方式을 過小評價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經驗科學에 對한 偏重에서 惹起될 것이 豫想되는, 여러가지 逆機能을 批判

하고, 克服하기 爲하여서도라도 一次的으로 經驗科學의 方法論이 理解되고 受容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特히 오늘날 行動科學의 驚異的 諸成果는 우리의 法學이나 法律實務에 充實히 反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法學이 概念法學의 最高峰이라 불리우는 빈트샤이트 以來 얼마나 前進하였으며, 우리의 法律實務가 日帝의 遺物인 天皇制官僚主義의 殘滓를 얼마나 清算하였는가에 關하여 다시한번 徹底한 反省이 있어야 하리라 봅니다.

이에 덧붙여 法學이나 法律實務의 主體가 되는 法律家 또는 法曹人에 對한 國民의 信賴와 그들의 社會에 對한 寄與度를 提高시키는 方案도 함께 講究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法學이나 法律實務는 法을 主軸으로 하는 하나의 社會活動이며 法은 窮極의으로 實踐에 對한 奉仕에 依하여 그 價値가 確認되는 까닭에, 그 實踐의 主體인 法律家에 對한 國民의 信賴와 社會의 寄與는 結局 法에 對한 國民의 信賴와 法の 社會的 寄與에 直結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本人은 法律家가 眞의 學問을 익힌 技術者로서 法匪라는 汚名을 벗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먼저 社會를 이끌어가는 엘리트로서의 使命感을 透徹히 하고 圓熟한 人格을 陶冶하는 것이 緊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點은 過去指向의 記憶力 爲主의 教育 乃至 考試制度에 있어서, 人格에 依하여 人格을 擔保하는 推薦制 등을 果敢히 導入하는 등의 方法으로, 全人的 法律家의 養成을 制度的으로 뒷받침하는 方案의 講究가 所望스럽다고 생각합니다.

滿場하신 內外貴賓 여러분! 東과 西의 知慧가 交換되는 討論의 廣場이자, 學界와 實務界가 融和되는 理論과 實踐의 交叉路이며, 새로운 未來가 過去의 轍跡을 벗고 創造되는 眞理의 祭典이라 할, 뜻깊은 오늘의 이 學術會議에, 다시한번 衷心으로 敬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本人은 微力이나마 本人이 가진 모든 力量과 熱誠으로 여러분의 이 모임에 최대의 後援할 것을 約束드립니다.

이들간에 걸친 이 會議가 深奧하고 眞摯한 意見交換을 通하여 우리나라 法學과 法律實務가 나가야 할 劃期的 方向轉換을 敎示함으로써 우리의 文化史에 빛나는 新紀元을 이루시길 祈願하면서 다시한번 뜨거운 祝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感謝합니다.

1981年 12月 5日

法務部長官 李 鐘 元